

기혼자의 관계적 동기와 만족도: 신경증의 조절효과*

이 화 령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신 지 은[†]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결혼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으로, 기혼자의 사회 관계망은 배우자와 자녀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특성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자의 핵심 관계와 관련된 관계적 동기(배우자 유지,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각 동기가 해당 관계 만족도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그리고 이 관계가 개인의 신경증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들은 동기가 성취의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이상-실제 간극이 유발하는 부정 정서로 인해 역기능적일 수 있음을 보고해왔다. 따라서 신경증과 관련된 부정적 정보 민감성과 반응성은 관계적 동기가 관계 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혼자를 대상으로 두 개의 연구를 수행한 결과, 예상대로 높은 배우자 유지 동기(연구 1)와 높은 자녀 양육 동기(연구 2)는 신경증 수준이 낮을 때에만 관계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높은 관계적 동기가 해당 관계의 질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낮은 신경증이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주요어 : 관계적 동기, 배우자 유지, 자녀 양육, 신경증, 관계 만족도

*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과제번호: 2020-1878)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신지은,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61186) 광주광역시 용봉로 77, E-mail: jjeunshin@jnu.ac.kr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은 전 생애에 걸친 보편적 과제다. 하지만 구체적인 관계의 종류와 이를 둘러싼 동기는 개인의 발달 단계와 과업에 따라 달라진다. 그 대표적인 전환점은 결혼으로, 이는 개인이 가진 사회 관계망의 구조와 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기혼자의 사회 관계망은 대체로 이전보다 그 범위가 좁아지고 배우자 및 자녀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향이 나타나며(Kalmijn, 2003), 이 시기에 형성된 가족은 개인의 삶에 장기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비교적 잘 알려진 미혼자의 관계적 동기와 심리 기제(예, Buss & Schmitt, 2019)에 비해, 기혼자의 관계적 동기와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일부 이루어진 연구들은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들을 밝히는데 국한되어 있다(예, 김영남, 고재홍, 2011; 백혜영, 신희천,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혼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어떤 관계적 동기를 가지는지, 개별 동기가 해당 관계의 질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리고 이 동기-만족도의 관련성이 개인의 성격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혼자의 관계적 동기

기혼자의 관계망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구성원은 배우자와 자녀로, 이들은 공고한 사회적 지지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삶과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Dunbar, 2018). 무엇보다 배우자는 개인의 안녕감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존재다.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고, 사교적이고, 건강한 경향을 보이며(Grover & Helliwell, 2019), 배우자와의 관계는 주관적 안녕감의 강력한 예측 요인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Proulx, Helms, & Buehler, 2007).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은 진화 심리학자들이 재해석한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Kenrick, Griskevicius, Neuberg, &

Schaller, 2010). 구체적으로, Kenrick과 동료들(2010)은 성공적인 재생산(reproduction)을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간주하고 피라미드의 최상위에 배우자 획득, 배우자 유지 및 자녀 양육 동기와 같은 관계 관련 동기를 새롭게 제시한 바 있다. 성공적인 재생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인간은 배우자와 자녀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고, 따라서 그 기반이 되는 내적 기제, 즉 관계적 동기가 관련 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우선 기혼자에게는 배우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 인간은 성장 속도가 느리고 양육을 위한 상당한 자원이 요구된다(Kaplan, Hill, Lancaster, & Hurrado, 2000). 따라서 이를 함께 분담할 배우자가 절실하다. 배우자 유지 동기는 이를 돕는 대표적인 심리 기제에 해당한다. 실제로 기혼 관계를 포함한 대부분의 장기적인 연인 관계에서 상대를 곁에 두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관찰되며, 이는 상대의 배우자 가치가 높다고 여길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Buss & Shackelford, 1997). 배우자 유지 동기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성애 흥미를 덜 느끼고 현재 상대를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관계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Fletcher & Kerr, 2010; Neel, Kenrick, White, & Neuberg, 2016).

기혼자의 또 다른 핵심 과업은 자녀 양육이다. 자녀는 필연적으로 부모에게 물질적, 심리적으로 의존해 성장하기 때문에 헌신적인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육 동기는 부모가 이러한 보호와 돌봄을 성공적으로 지속하도록 돕는 중요한 심리 기제(Kenrick et al., 2010), 연민과 공감함을 비롯한 이타적 행동의 근간이 된다(Batson, 2012). 양육 동기는 옥시토신 증가와 같은 호르몬 변화를 수반할 뿐만 아니라(Atzil, Hendler, & Feldman, 2011) 사람들이 환경 내 잠재적 위협을 더 민감하게 지각하도록 만들어 효과적으로 돌봄 행동을 수행하도록 한다(Fessler, Holbrook, Pollack, & Hahn-Holbrook, 2014).

배우자 유지와 자녀 양육은 인간의 근본적인

과업임에도 그 동기 수준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차는 해당 동기와 관련된 다양한 인지, 정서, 행동적 특성들을 예측한다. 가령 Neel과 동료들(2016)의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 유지 동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배우자에게 더 강한 애착을 느끼며 장기적인 관계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실제로 배우자에게 선물을 주는 횟수 또한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동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호적 성향이 높고 일상에서 자녀에 대한 언급을 더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각 관계적 동기가 일련의 인지 행동적 전략을 통해 해당 관계 촉진에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Kenrick, Neuberg, Griskevicius, Becker, & Schaller, 2010). 그렇다면 과연 높은 관계적 동기를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관계에 더 만족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혹시 높은 관계적 동기가 높은 관계 만족도로 이어지기 위한 특정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닐까?

관계적 동기의 조건적 혜택

동기는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대개 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도 커진다(Atkinson, 1964; Sheldon, 2004). 높은 동기는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정보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만들고,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며, 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돕기 때문이다(Covington, 2006). 예를 들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이 동기를 충족하도록 이끄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Floyd, Prentice-Dunn, & Rogers, 2000). 결과적으로 이는 건강에 대한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학업성취에 대한 높은 동기는 학업 수행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Hidi & Harackiewicz, 2000). 이러한 결과는 높은 동기가

해당 목표 및 영역에서의 성취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높은 동기가 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취 여부를 주관적 평가나 만족감을 기반으로 판단할 때 특히 그러하다. 이는 동기가 목표 성취를 촉진하는 행동의 빈도도 높이지만, 성취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이기 때문이다(Carver & Scheier, 1981; Higgins, 1987, 1990). 높은 기대와 열망은 성취를 평가하는 나침반으로 작용함으로써 이상-실제의 간극을 유발하고 이는 좌절이나 무기력과 같은 부정 정서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높은 동기가 유발하는 모니터링 경향도 잠재적인 실패와 관련된 정보에 노출시킴으로써 만족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Lawrence, Carver, & Scheier, 2002).

동기는 이렇듯 양면적인 특성을 지닌다. 관련 행동을 촉발시킨다는 점에서 동기는 일반적으로 적응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동기가 높을수록 이를 충족하기도 어려워므로 이후 성취 행동을 방해할 수도 있다. 설사 성취를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더라도 높은 동기는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 평가를 보장할 수 없다(Sheldon, 2011). 이는 높은 동기가 때에 따라 적응적일 수도, 부적응적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동기의 부적응적 측면을 보여주는 한 예로 행복을 들 수 있다. 행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가치이지만 이에 대한 동기 수준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행복을 원하고 추구할수록 행복해질 것 같지만, 예상과 달리 행복에 대한 동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낮은 것은 물론, 외로움과 우울증에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Ford, Shallcross, Mauss, Floerke, & Gruber, 2012; Mauss et al., 2012).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행복에 대한 높은 동기가 사람들에게 행복에 대한 경직된 사고(예, '나는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를 하도록 만들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정서를 수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안락감을 저해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동기의 양면적 특성은 관계 영역에서

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친애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눈 맞춤, 미소 등 관계를 촉진하는 비언어적 행동(McAdams, Jackson, & Kirshnit, 1984)은 물론, 관계 지향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고 상호작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Hagemeyer, Dufner, & Denissen, 2016; McClelland, 1985). 자연히 이들은 대체로 더 높은 관계 만족도와 행복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지만(McAdams & Vaillant, 1982), 이와 동시에 불안이나 신체화와 같은 부정적 경험에도 취약할 수 있다(Baard, Deci, & Ryan, 2004). 실제로 친애 동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에 위협이 되는 상황(예, 웃지 않는 무표정한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눈썹을 찌푸리는 등 더 큰 안면 반응을 보이며(Kordik, Eska, & Schulthesiss, 2012),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히려 스스로 관계의 질을 저해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Mason & Blankenship, 1987). 이는 관계적 동기가 언제,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 그 관계에 대한 경험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Job, Bernecker 및 Dweck(2012)은 관계에 대한 동기가 관계 만족도로 이어지는 데에는 해당 동기에 상응하는 긍정적 정서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친애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편안함과 같은 관계 지향적 긍정 정서를 많이 경험할 때 더 높은 관계 만족도를 보고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동기와 만족감의 관계를 좌우하는 변인으로 개인의 성격, 그중에서도 특히 부정적 정서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신경증에 주목했다. 이러한 시도는 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친애/소속 동기 대신 배우자와 자녀라는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동기(배우자 유지, 자녀 양육; Neel et al., 2016)를 다룬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화된다. 무엇보다 관계 내 상호작용의 결과물인 정서 경험 대신, 이에 선행하는 개인 내적 기제인 성격을 다룬다는 점에서 현상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예측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경증과 대인 관계

신경증은 성격 5요인 중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정서에 취약한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힌다(Costa & McCrae, 1992). 따라서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낮은 신체적/심리적 안녕감은 물론, 대인 관계에서도 다양한 부적응을 경험하기 쉽다(DeNeve & Cooper, 1998; Ozer & Benet-Martínez, 2006). 신경증이 높을수록 관계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행동과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Caughlin, Huston, & Houts, 2000; Suls, Green, & Hillis, 1998), 부적응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며(예, 자기 비난; Gunthert, Cohen, & Armeli, 1999), 동일한 사회적 경험과 사건에도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Denissen, & Penke, 2008; Mroczek & Almeida, 2004).

실제로 신경증은 결혼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 중 하나이며(장지영, 황순택, 2012; Malouff, Thorsteinsson, Schutte, Bullar, & Rooke, 2010), 신경증이 높을수록 이혼 확률 또한 높다(Shiota & Levenson, 2007). 신경증이 수반하는 부정적 정서성은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경증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의 행동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귀인하며(Prinz, Stams, Deković, Reijntjes, & Belsky, 2009), 권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훈육하거나 자녀와의 상호작용상에서 낮은 민감성과 반응성을 보인다(Clark, Kochanska, & Ready, 2000). 이에 신경증이 높은 부모들은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최윤희, 김영희, 2012), 자녀와의 관계에서 긍정 정서를 경험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쉽게 소진되는 경향이 있다(Le Vigouroux, Scola, Raes, Mikolajczak, & Roskam, 2017). 신경증의 또 다른 대표적인 특성은 회피적 동기 및 행동 경향성이다(Elliott & Thrash, 2002; Liu, Ode, Moeller, & Robinson, 2013). 이는 부정 정서와 관련을 보이며 대인관계의 질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위험 요소로 꼽힌다(Gable & Impett, 2012; Impett et al., 2010).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신경증이 관계적 동기가 건강

하고 적응적인 방식으로 발현되는 것을 저해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요컨대,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자의 관계에 대한 동기와 만족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경증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배우자 유지 동기와 배우자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연구 2에서는 자녀 양육 동기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했다. 연구자들은 두 연구 모두에서 높은 신경증은 관계적 동기가 높은 사람의 관계 만족도를 저해할 것으로 예측했다. 모든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202011-HR-1584-06)을 거쳐 진행되었다.

연구 1

연구 1의 목적은 배우자 유지 동기와 관계 만족도의 관련성이 신경증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신경증이 관계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밝혀진 바 있다. 신경증이 수반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취약성은 관계에 대한 높은 동기가 건강하고 적응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자신이 배우자와 맺고 있는 관계를 덜 만족스럽게 지각하도록 이끄리라 예상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자료를 이용해 이들의 배우자 유지 동기와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방 법

연구 대상

총 200명의 성인 참가자가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설문에 참여하였다. 이 중 배우자 유지 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현재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74 명(남 = 102 명, 여 = 71 명, 1 명 성별 누락)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49.08 세($SD = 2.70$)로, 모두 설문 당시 자녀가 있는 상태였다.

측정 도구

배우자 유지 동기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근본적 사회 동기 척도(Fundamental social motives inventory; Neel et al., 2016) 중 배우자 유지 동기(Mate retention motive)를 측정하는 6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alpha = .81$). 예시 문항은 ‘나는 나의 배우자가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배우자가 나와서의 관계에 전념하도록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는다(역문항)’ 등이다. 참가자들은 주어진 문항들이 현재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는지 7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였다.

배우자 관계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현재 당신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체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7점 척도(1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 = 매우 만족한다)로 이루어졌다.

신경증

본 연구의 조절 변수인 신경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Gosling, Rentfrow와 Swann(2003)의 10 문항 성격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측정의 경제성을 우선시하여 개발된 간이 척도로 요인별 2개의 형용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하위 요인을 포함한 타 척도들보다 내적 일치도가 낮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여전히 적정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효율적인 척도로 평가된다(Kline, 2000; Wood, &

Hampson, 2005). 참가자들은 각 형용사가 평소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 7점 척도로 답했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신경증은 ‘불안한/맘이 쉽게 상하는’, ‘차분한/정서적으로 안정된(역문항)’의 두 문항($\alpha = .55$)으로 측정되었으며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기타 통계 변인

공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변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인구 통계학적 요소인 성별, 나이,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 기간을 반영하는 첫째 자녀 나이($M = 17.9, SD = 2.77$)를 함께 측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참가자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측정하였다(Adler, Epel, Castellazzo, & Ickovics, 2000).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객관적 소득보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 수준이 다양한 심리사회적 현상을 더 잘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Boyce, Brown, & Moore, 2010). 본 단일 문항 척도를 번역 사용하여 참가자들이 개인의 가정 경제 수준이 사회에서 어느 위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10점 척도(1 = 저소득, 10 = 고소득)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가정이 사회 내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 및 논의

먼저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단순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나타냈다. 선행 연구 결과와 일관되게 배우자 관계 만족도와 신경증 간의 유의한 부적 상관이 관찰되었으며, $r = -.25, p = .001$, 배우자 유지 동기 또한 신경증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 -.26, p = .001$. 그리고 배우자 유지 동기는 배우자 관계 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22, p = .004$.

이어서 배우자 유지 동기와 배우자 관계 만족도의 관계가 신경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Hayes(2013)가 개발한 PROCESS Macro(model 1)를 활용하였다. 종속 변수에는 배우자 관계 만족도가, 독립 변수에는 배우자 유지 동기가, 조절 변수에는 신경증이 투입되었다(그림 1). 붓스트랩(bootstrap) 표본수는 5,000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배우자 관계 만족도에 대한 배우자 유지 동기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b = .98, SE = .25, p < .001, CI_{95} = [0.50, 1.47]$. 예상대로 신경증 수준은 배우자 유지 동기와 배우자 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22, SE = .06, p = .001, CI_{95} = [-0.35, -0.09]$. 구체적으로, 배우자 유지 동기는 신경증 수준이 낮은(-1 SD) 사람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를 예측했지만, $b = .52, SE = .13, p < .001$,

표 1.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N = 174$)

	<i>M(SD)</i>	1	2	3	4	5	6	7
1. 배우자 유지 동기	4.95(1.04)	-						
2. 신경증	3.55(1.40)	-.26**	-					
3. 배우자 관계 만족도	4.53(1.40)	.22**	-.25**	-				
4. 성별	1.41(0.50)	.03	.03	-.04	-			
5. 나이	49.08(2.70)	.00	.01	-.01	-.32**	-		
6. 첫째 자녀 나이	17.90(2.77)	.10	-.12	-.03	.01	.44**	-	
7. 사회경제적 수준	5.52(1.59)	.02	.06	.36**	.03	-.02	-.09	-

주. ** $p < .01$. 성별 (1 = 남자, 2 =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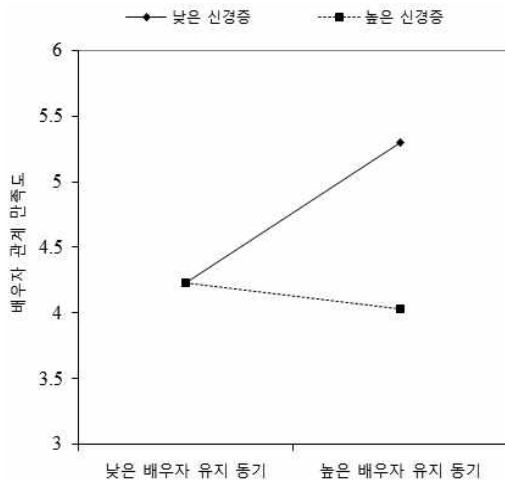


그림 1. 배우자 관계 만족도에 대한 신경증의 조절효과(연구 1)

공변인 통제 전 결과. 낮은 신경증은 평균 $-1SD(2.15)$ 점, 높은 신경증은 평균 $+1SD(4.94)$ 점

$CI_{95} = [0.26, 0.77]$, 이러한 경향은 신경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1 SD$) 사람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b = -.09, SE = .14, p = .495, CI_{95} = [-0.36, 0.18]$.

이어서 본 연구의 결과가 제 3의 변인에 기인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별과 나이, 첫째 자녀 나이와 사회경제적 수준을 공변인으로 추가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배우자 관계 만족도에 대한 배우자 유지 동기의 주효과($b = .71, SE = .24, p = .003, CI_{95} = [0.24, 1.19]$)와 신경증의 조절효과($b = -.14, SE = .06, p = .024, CI_{95} = [-0.27, -0.02]$)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유지 동기는 신경증 수준이 낮은($-1 SD$) 사람들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만을 예측했다, $b = .41, SE = .13, p = .002, CI_{95} = [0.15, 0.66]$. Johnson-Neyman 검정을 통해 이 조건부 효과의 유의영역을 살펴본 결과, 신경증 수준이 3.66(하위 50.87%, 상위 49.13% 지점) 이하에서만 조건부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경증 수준이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만 관계적 동기가

관계 만족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2

연구 1을 통해 배우자 유지 동기가 신경증이 낮을 때에만 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연구 2의 목적은 이러한 신경증의 조절효과가 다른 관계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기혼자의 또 다른 중요한 관계적 영역인 '자녀'에 대한 양육 동기 및 관계 만족도에 주목하고 자녀 양육 동기와 관계 만족도의 관련성도 부모의 신경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때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에 근거한 관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관계에 대한 동기와 신경증의 상호작용이 해당 관계 관련 판단에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현상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 더하여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추가로 측정하였다. 만일 관계적 동기와 신경증의 상호작용이 영역 특수적이라면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삶의 만족도 판단에서는 신경증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반면, 신경증의 조절효과가 보다 영역 일반적 기제에 가깝다면 이는 해당 관계를 넘어 전반적 삶의 판단에까지 확장,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방법

연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자녀가 1명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에는 학령기 자녀(6-12세)가 있는 35-45세 남녀 참가자 165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에서 응답을 완료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총 164명(남자 = 74명,

여자 = 90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41.82세($SD = 2.34$)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자녀 양육 동기

자녀에 대한 양육 동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근본적 사회 동기 척도(Neel et al., 2016) 중 자녀 돌봄 동기(kin care motive: child)를 측정하는 6문항($\alpha = .69$)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예시 문항은 '나는 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아니다(역문항)' 등이다. 참가자들은 주어진 문항들이 현재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는지 7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였다.

자녀 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현재 당신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체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7점 척도(1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 = 매우 만족한다)로 이루어졌다.

신경증

신경증을 측정하기 위해 Brody와 Ehrlichman (1998)의 형용사형 25문항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 요인 각 5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에 해당하는 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각 형용사가 평소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7점 척도로 답했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 신경증(예, 신경이 날카로운) 문항 간의 내적 일치도는 .85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 척도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의 번역본 5 문항($\alpha = .88$)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임남연, 이화령, 서은국, 2010). 응답은 7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로 이루어졌다.

기타 통제 변인

공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변인들의 통제를 위해 부모 나이, 자녀 나이, 부모 성별, 자녀 성별을 측정하였으며(Le, Sakaluk, Day, & Impett, 2019), 사회경제적 수준은 연구 1과 동일한 단일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및 논의

먼저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단순 상관분석 결과를 표 2에 나타냈다. 선행 연구와 같이, 자녀 관계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38, p < .001$. 신경증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r = -.22, p = .005$, 자녀 관계 만족도와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 -.57, p < .001$. 자녀 양육 동기는 자녀 관계 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r = .08, p = .309$, 삶의 만족도와도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r = .07, p = .376$.

이어서 자녀 양육 동기와 자녀 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가 신경증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Hayes(2013)가 개발한 PROCESS Macro(model 1)를 활용하였다(그림 2). 종속 변수에는 자녀 관계 만족도가, 독립 변수에는 자녀 양육 동기가, 조절 변수에는 신경증이 투입되었다. 부스트랩(bootstrap) 표본 수는 5,000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 관계 만족도에 대한 자녀 양육 동기의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b = .84, SE = .30, p = .007, CI_{95} = [0.24, 1.43]$. 예상과 같이,

표 2.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N = 164)

	M(SD)	1	2	3	4	5	6	7	8	9
1. 양육 동기	6.06(0.76)	-								
2. 신경증	3.61(1.32)	-.04	-							
3. 자녀 관계 만족도	5.41(1.23)	.08	-.57**	-						
4. 삶의 만족도	4.40(1.19)	.07	-.22**	.38**	-					
5. 부모 성별	1.55(0.50)	.01	.07	.08	-.02	-				
6. 부모 나이	41.82(2.34)	-.17*	-.03	.01	-.12	.08	-			
7. 자녀 성별	1.47(0.50)	.02	.14	-.10	-.01	-.03	-.01	-		
8. 자녀 나이	10.30(1.40)	-.01	.18*	-.04	.01	.03	.37**	.04	-	
9. 사회경제적 수준	5.32(1.87)	.06	-.14	.22**	.45**	-.02	-.08	-.01	.04	-

주. ** $p < .01$, *** $p < .001$, 부모 성별(1 = 남자, 2 = 여자), 자녀 성별(1 = 부모와 동성, 2 = 부모와 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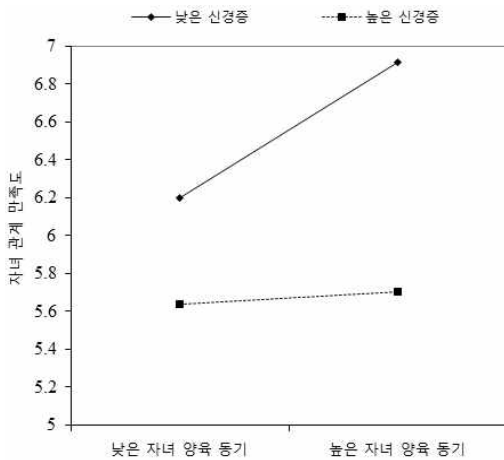


그림 2. 자녀 관계 만족도에 대한 신경증의 조절효과(연구 2)

공변인 통제 전 결과. 낮은 신경증은 평균 $-1.5SD(2.29)$ 점, 높은 신경증은 평균 $+1.5SD(4.93)$ 점

신경증 수준은 자녀 양육 동기와 자녀 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19$, $SE = .07$, $p = .010$, $CI_{95} = [-0.34, -0.05]$. 구체적으로, 자녀 양육 동기는 신경증 수준이 낮은(-1 SD) 사람의 자녀 관계 만족도를 예측했지만, $b = .39$, $SE = .15$, $p = .012$, $CI_{95} = [0.09, 0.70]$, 신경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1 SD) 사람에게서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b = -.12$, $SE = .13$, $p = .370$, $CI_{95} = [-0.38, 0.14]$.

이어서 본 연구의 결과가 제 3의 변인에 기인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성별과 나이, 자녀의 성별과 나이, 사회경제적 수준을 공변인으로 추가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 관계 만족도에 대한 자녀 양육 동기의 주효과($b = .71$, $SE = .32$, $p = .027$, $CI_{95} = [0.08, 1.33]$)와 신경증의 조절효과($b = -.16$, $SE = .08$, $p = .039$, $CI_{95} = [-0.31, -0.01]$)가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녀 양육 동기는 신경증 수준이 낮은(-1 SD) 사람들의 자녀 관계 만족도만을 예측했다, $b = .34$, $SE = .16$, $p = .036$, $CI_{95} = [0.22, 0.65]$. Johnson-Neyman 검정을 통해 이 조건부 효과의 유의영역을 살펴본 결과, 신경증 수준이 2.71(하위 20.22%, 상위 73.78% 지점) 이하에서만 조건부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육에 대한 높은 동기는 신경증 수준이 낮을 때에만 자녀와의 만족스러운 관계 경험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함께 신경증 수준이 자녀 양육 동기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도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 변수에는 삶의 만족도, 독립 변수에는 자녀 양육 동기, 조절 변수에는 신경증이 투입되었다.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자녀 양육 동기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 = .54$, $SE = .35$, $p = .129$, $CI_{95} = [-0.16, 1.24]$.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대한 신경증의 조절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b = -.16$, $SE = .09$, $p = .184$, $CI_{95} = [-0.29, 0.06]$. 부모의 성별과 나이, 자녀의 성별과 나이, 사회경제적 수준을 공변인으로 투입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주효과: $b = .32$, $SE = .34$, $p = .346$, $CI_{95} = [-0.35, 0.99]$; 조절효과: $b = -.07$, $SE = .08$, $p = .379$, $CI_{95} = [-0.24, 0.09]$). 이상의 결과는 신경증과 관계적 동기의 상호작용이 영역 특수적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종합논의

가족은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하지만 이 관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망이 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동기는 성취의 원동력이지만, 동기가 강할수록 성취에 대한 기대와 실제-이상의 간극이 지각되면 실망감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관계 내 부정적 단서에 대한 민감성 및 반응성이 높을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자의 관계적 동기와 관계 만족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개인차 변인으로 신경증을 상정하고, 관계적 동기와 관계 만족도의 관련성이 신경증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배우자 유지(연구 1) 및 자녀 양육(연구 2)에 대한 높은 동기는 신경증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의 관계 만족도만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신경증의 조절효과는 성별, 나이, 경제적 수준 등의 변인들을 통제하고서도 유효했다.

본 연구 결과는 관계적 동기가 신경증 수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빚어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관계적 동기와 관계 만족도 간의 긍정적 관계가 신경증이 낮을 때에만 존재한다는 결과는 신경증의 관계 내 부적응적 특성을 다룬 기존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신경증은 관계의 질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성격 요인으로 언급되어 왔으며 신경증이 높을수록 대체로 관계 만족도가 낮다(DeNeve & Cooper, 1998; Heller, Watson, & Ilies, 2004).

그렇다면 관계적 동기는 왜 신경증이 낮을 때에만 적응적인 것일까?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우선 신경증과 직결된 부정적 정서성을 들 수 있다.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 스트레스, 우울 등의 부정 정서를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부정 정서에 대한 취약성은 그 자체로 사람들이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만들 수 있다(Forgas, 1995). 또한 이들은 부정적 사건에 대해 더 높은 반응성을 보일 뿐 아니라(Norris, Leaf, & Fenn, 2019; Wupperman & Neumann, 2006; Zautra, Affleck, Tennen, Reich, & Davis, 2005), 부정 정서를 더 빈번하게 반추하는 모습을 보인다(Hervas & Vazquez, 2011).

신경증이 수반하는 회피적 동기 및 행동 경향성도 이러한 현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Liu et al., 2013). 신경증이 높을수록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계 내 부정적인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들며(Gable, Reis, & Elliot, 2003; Liu et al., 2013), 다양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Gámez, Chmielewski, Kotov, Ruggero, & Watson, 2011). 이러한 회피적 성향의 역기능은 신경증의 또 다른 특성인 낮은 자기 통제 능력에 의해 증폭될 수 있다(Fetterman, Robinson, Ode, & Gordon, 2010). 목표를 잘 성취하기 위해서는 동기뿐 아니라 동기와 관련된 기술이나 능력,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성공적인 자기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obinson & Wilkowski, 200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경증의 특성들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기-만족도 간 관계가

어떻게, 왜 조절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예, 조절된 매개)을 통해 신경증이 수반하는 다양한 특성 중 어떤 것이 관계에 대한 높은 동기가 만족도로 이어지는 과정을 저해하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신경증 조절효과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동기와 그에 상응하는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앞서 나타난 신경증의 조절효과가 해당 영역에서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모든 영역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현상인지 파악하기 위해 연구 2에서 삶의 만족도에 판단을 추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삶 전반에 관한 판단에서는 관계적 동기와 신경증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신경증에 따른 관계적 동기와 만족도의 관계는 영역 일반성을 가지기보다는 영역 특수적 성격을 띤다고 잠정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 대한 몇 가지 한계점을 짚어보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만으로 성격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결혼 생활의 질을 이해하는 데 개인이 지각한 성격과 배우자가 지각한 성격의 간극이 중요함을 보고하고 있다(Neff & Karney,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동기-성격의 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지각한 신경증을 함께 측정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관계 만족도가 개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의 신경증 수준에도 영향을 받는 상호적 성격을 띤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각 관계를 쌍으로 분석하는(예, 강혜숙, 김영희, 2012) 후속 연구가 권장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동기의 강도만 측정하였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동기는 그것이 얼마나 외현적/암묵적인지(Brunstein & Maier, 2005), 내재적/외재적인지(Deci & Ryan, 2000) 또는 개인/

상호적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Gore & Cross, 2006)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띠 수 있다. 따라서 동기-성격의 상호작용을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동기 개념과 이론적 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만을 다루었지만 관계적 동기와 만족도의 관계를 조율하는 다른 성격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가령, 한 연구(Claxton, O'Rourke, Smith, & DeLongis, 2012)에서는 오랜 결혼 생활을 한 부부의 관계 만족도 판단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격 요인이 성실성임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토대로 연구 1의 자료에 대해 신경증 외 나머지 4개 성격 요인의 조절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¹⁾. 그 결과, 외향성과 성실성의 조절효과가 추가로 관찰되었다, 외향성, $b = .25$, $SE = .06$, $p < .001$, $CI_{95} = [0.12, 0.37]$; 성실성, $b = .23$, $SE = .09$, $p = .01$, $CI_{95} = [0.06, 0.41]$. 이는 외향성과 성실성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적 동기가 관계 만족도를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연구 1에서 나타난 신경증의 조절효과는 나머지 4개의 성격 요인을 모두 통제하고서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16$, $SE = .06$, $p = .011$, $CI_{95} = [-0.28, -0.03]$. 성격의 다양한 요인들은 서로 독립되는 동시에 상호 긴밀하게 관련된다(John, Naumann, & Soto, 2008). 따라서 성격에 따른 관계적 동기와 만족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5요인 성격 특성들이 서로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컨대,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은 기혼자의 삶을 구성하는 핵심적 관계다. 따라서 이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 관계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할수록 만족스러운 관계를 영위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다. 하지만 관계에 대한 개인의 높은 동기

1) 연구 2에서는 신경증에 해당하는 문항만 측정된 관계로 추가 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음.

가 관계의 질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건강하고 적응적으로 발현되어야 하며, 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해당 개인의 신경증임을 밝혔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저자 소개

이화령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요인들과 그 심리적 기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신지은은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인간의 정서 및 사회적 행동을 기능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장혜숙, 김영희 (2012). 부부의 성격특성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상담학연구*, 13(6), 2861-2880.

김영남, 고재홍 (2011).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이 행복감과 부부관계의 질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67-182.

백혜영, 신희천 (2008). 애정관계에서 낙관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평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3), 1-14.

임낭연, 이화령, 서은국 (2010). 한국에서의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사용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1), 21-47.

장지영, 황순택 (2012). 부부의 성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133-148.

최윤희, 김영희 (2019).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가 어머니와 영유

아 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12(2), 23-49.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592.

Atkinson, J. W. (1964). *An introduction to motivation*. Princeton, NJ: Van Nostrand.

Atzil, S., Hendler, T., & Feldman, R. (2011). Specifying the neurobiological basis of human attachment: Brain, hormones, and behavior in synchronous and intrusive mothers. *Neuropsychopharmacology*, 36(13), 2603-2615.

Baard, P. P., Deci, E. L., & Ryan, R. M. (2004). Intrinsic need satisfaction as a motivational basis of performance and well-being in two work setting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10), 2045-2068.

Batson, C. (2012). A history of prosocial behavior research. In A. W. Kruglanski, & W. Stroebe (Eds.), *Handbook of the history of social psychology* (pp. 243-264).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Boyce, C. J., Brown, G. D., & Moore, S. C. (2010). Money and happiness: Rank of income, not income, affects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Science*, 21(4), 471-475.

Brody, N., & Ehrlichman, H. (1998). *Personality psychology: The science of individuality*.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Brunstein, J. C., & Maier, G. W. (2005). Implicit and self-attributed motives to achieve: Two separate but interacting nee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2), 205-222.

Buss, D. M., & Schmitt, D. P. (2019). Mate preferences and their behavioral manifest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70, 77-110.

- Buss, D. M., & Shackelford, T. K. (1997). From vigilance to violence: Mate retention tactics in marri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2), 346-361.
- Carver, C. S., & Scheier, M. F. (1981). *Attention and self-regulation: A control theory approach to human behavior*. New York: Springer-Verlag.
- Caughlin, J. P., Huston, T. L., & Houts, R. M. (2000). How does personality matter in marriage? An examination of trait anxiety, interpersonal negativ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26-336.
- Clark, L. A., Kochanska, G., & Ready, R. (2000). Mothers' personality and its interaction with chil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2), 274-285.
- Claxton, A. O., Rourke, N., Smith, J. Z., & DeLongis, A. (2012). Personality traits and marital satisfaction within enduring relationships: An intra-couple discrepancy approa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9*(3), 375-396.
- Costa, P. T., & McCrae, R. R. (1992). Normal personality assessment in clinical practice: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4*(1), 5-13.
- Covington, M. V. (2000). Goal theory, motivation, and school achievement: An integrative review.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4), 171-200.
- Deci, E. L. & Ryan, R. M.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54-67.
- DeNeve, K. M., & Cooper, H. (1998). The happy personality: A meta-analysis of 137 personality trait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24*(2), 197-229.
- Denissen, J. J. A., & Penke, L. (2008). Neuroticism predicts reactions to cues of social inclus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2*(6), 497-517.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unbar, R. I. (2018). The anatomy of friendship.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22*(1), 32-51.
- Elliot, A. J., & Thrash, T. M. (2002). Approach-avoidance motivation in personality: Approach and avoidance temperaments and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5), 804-818.
- Fessler, D. M., Holbrook, C., Pollack, J. S., & Hahn-Holbrook, J. (2014). Stranger danger: Parenthood increases the envisioned bodily formidability of menacing men.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5*(2), 109-117.
- Fetterman, A. K., Robinson, M. D., Ode, S., & Gordon, K. H. (2010). Neuroticism as a risk factor for behavioral dysregulation: A mindfulness-mediation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9*(3), 301-321.
- Fletcher, G. J., & Kerr, P. S. (2010). Through the eyes of love: Reality and illus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Bulletin, 136*(4), 627-658.
- Floyd, D. L., Prentice-Dunn, S., & Rogers, R. W. (2000). A meta analysis of research on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2), 407-429.
- Ford, B. Q., Shallcross, A. J., Mauss, I. B., Floerke, V. A., & Gruber, J. (2014). Desperately seeking happiness: Valuing happiness is associated with symptoms and diagnosis of dep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3*(10), 890-905.
- Forgas, J. P. (1995). Strange couples: Mood effects on judgments and memory about prototypical and atypical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1), 10-19.

- Psychology Bulletin*, 21(7), 747-765.
- Gable, S. L., & Impett, E. A. (2012). Approach and avoidance motives and close relationship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6(1), 95-108.
- Gable, S. L., Reis, H. T., & Elliot, A. J. (2003). Evidence for bivariate systems: An empirical test of appetition and aversion across domai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5), 349-372.
- Gámez, W., Chmielewski, M., Kotov, R., Ruggero, C., & Watson, D. (2011). Development of a measure of experiential avoidance: The Multidimensional Experiential Avoidance Questionnaire. *Psychological Assessment*, 23(3), 692-713.
- Gore, J. S., & Cross, S. E. (2006). Pursuing goals for us: Relationally autonomous reasons in long-term goal pursui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5), 848-861.
- Gosling, S. D., Rentfrow, P. J., & Swann, W. B., Jr. (2003). A very brief measure of the Big Five personality domai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6), 504-528.
- Grover, S., & Helliwell, J. F. (2019). How's life at home? New evidence on marriage and the set point for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0(2), 373-390.
- Gunther, K. C., Cohen, L. H., & Armeli, S. (1999). The role of neuroticism in daily stress and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5), 1087-1100.
- Hagemeyer, B., Dufner, M., & Denissen, J. J. (2016). Double dissociation between implicit and explicit affiliative motives: A closer look at socializing behavior in dyadic interactio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65, 89-93.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 Heller, D., Watson, D., & Ilies, R. (2004). The role of person versus situation in life satisfaction: A critical examin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30(4), 574-600.
- Hervas, G., & Vazquez, C. (2011). What else do you feel when you feel sad? Emotional overproduction, neuroticism and rumination. *Emotion*, 11(4), 881-895.
- Hidi, S., & Harackiewicz, J. M. (2000). Motivating the academically unmotivated: A critical issue for the 21st centur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0(2), 151-179.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 Higgins, E. T. (1990).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and person-situation relations: Standards and knowledge activation as a common language. In L. A. Pervin (Ed.),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301-338). New York, NY: Guilford Press.
- Impett, E. A., Gordon, A. M., Kogan, A., Oveis, C., Gable, S. L., & Keltner, D. (2010). Moving toward more perfect unions: Daily and long-term consequences of approach and avoidance goals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6), 948-963.
- Job, V., Bernecker, K., & Dweck, C. S. (2012). Are implicit motives the need to feel certain affect? Motive-affect congruence predicts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12), 1552-1565.
- John, O. P., Naumann, L., & Soto, C. J. (2008). Paradigm shift to the integrativ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conceptual issues. In O. P. John, R. W. Robins, & L. A. Pervi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3rd ed., pp. 114-158). New York, NY:

- Guilford Press.
- Kalmijn, M. (2003). Shared friendship networks and the life course: An analysis of survey data on married and cohabiting couples. *Social Networks*, 25(3), 231-249.
- Kaplan, H., Hill, K., Lancaster, J., & Hurtado, A. M. (2000). A theory of human life history evolution: Diet, intelligence, and longevity. *Evolutionary Anthropology*, 9(4), 156-185.
- Kenrick, D. T., Griskevicius, V., Neuberg, S. L., & Schaller, M. (2010). Renovating the pyramid of needs: Contemporary extensions built upon ancient foundation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3), 292-314.
- Kenrick, D. T., Neuberg, S. L., Griskevicius, V., Becker, D. V., & Schaller, M. (2010). Goal-driven cognition and functional behavior: The fundamental motives framework.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9(1), 63-67.
- Kline, P. (2000). *The handbook of psychological testing*. London: Routledge.
- Kordik, A., Eska, K., & Schultheiss, O. C. (2012). Implicit need for affiliation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corrugator activity in a non-positive, but not in a positive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6(5), 604-608.
- Lawrence, J. W., Carver, C. S., & Scheier, M. F. (2002). Velocity toward goal attainment in immediate experience as a determinant of affec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4), 788-802.
- Le, B. M., Sakaluk, J. K., Day, L. C., & Impett, E. A. (2019). How gender, age, and socioeconomic status predict parenting goal pursui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6(10), 3313-3338.
- Le Vigouroux, S., Scola, C., Raes, M. E., Mikolajczak, M., & Roskam, I. (2017).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parental burnout: Protective and risk fact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9, 216-219.
- Liu, T., Ode, S., Moeller, S. K., & Robinson, M. D. (2013). Neuroticism as distancing: Perceptual sources of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5), 907-920.
- Malouff, J. M., Thorsteinsson, E. B., Schutte, N. S., Bhullar, N., & Rooke, S. E. (2010).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intimate partners: A meta-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1), 124-127.
- Mason, A., & Blankenship, V. (1987). Power and affiliation motivation, stress, and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203-210.
- Mauss, I. B., Savino, N. S., Anderson, C. L., Weisbuch, M., Tamir, M., & Luderslager, M. L. (2012). The pursuit of happiness can be lonely. *Emotion*, 12(5), 908-912.
- McAdams, D. P., Jackson, R. J., & Kirshnit, C. (1984). Looking, laughing, and smiling in dyads as a function of intimacy motivation and reciprocity. *Journal of Personality*, 52(3), 261-273.
- McAdams, D. P., & Vaillant, G. E. (1982). Intimacy motivation and psychosocial adjustment: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6), 586-593.
- McClelland, D. C. (1985). How motives, skills, and values determine what people do. *American Psychologist*, 40(7), 812-825.
- Mroczek, D. K., & Almeida, D. M. (2004). The effect of daily stress, personality, and age on daily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72(2), 355-378.
- Neel, R., Kenrick, D. T., White, A. E., & Neuberg, S. L. (2016). Individual differences in fundamental social mo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0(6), 887-907.
- Neff, L. A., & Karney, B. R. (2005). To know

- you is to love you: The implications of global adoration and specific accuracy for 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3), 480-497.
- Norris, C. J., Leaf, P. T., & Fenn, K. M. (2019). Negativity bias in false memory: Moderation by neuroticism after a delay. *Cognition and Emotion*, 33(4), 737-753.
- Ozer, D. J., & Benet-Martínez, V. (2006). Personality and the prediction of consequential outcom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7, 401-421.
- Prinz, P., Stams, G. J. J., Deković, M., Reijntjes, A. H., & Belsky, J. (2009). The relations between parents'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parenting: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2), 351-362.
- Proulx, C. M., Helms, H. M., & Buehler, C. (2007). Marital quality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3), 576-593.
- Robinson, M. D., & Wilkowski, B. M. (2006). Loving, hating, vacillating: Agreeableness, implicit self-esteem, and neurotic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74(4), 935-978.
- Schaller, M., & Murray, D. R. (2008). Pathogens, personality, and culture: Disease prevalence predicts worldwide variability in sociosexuality, extraversion, and openness to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1), 212-221.
- Sheldon, K. M. (2004). *Optimal human being: An integrated multilevel perspective*. Mahwah, NJ: Erlbaum.
- Sheldon, K. M. (2011). Integrating behavioral-motive and experiential-requirement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needs: A two process model. *Psychological Review*, 118(4), 552-569.
- Shiota, M. N., & Levenson, R. W. (2007). Birds of a feather don't always fly farthest: Similarity in Big Five personality predicts more negative marital satisfaction trajectories in long-term marriages. *Psychology and Aging*, 22(4), 666-675.
- Suls, J., Green, P., & Hillis, S. (1998). Emotional reactivity to everyday problems, affective inertia, and neurotic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2), 127-136.
- Woods, S. A., & Hampson, S. E. (2005). Measuring the Big Five with single items using a bipolar response scal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9(5), 373-390.
- Wupperman, P., & Neumann, C. S. (2006). Depressive symptoms as a function of sex-role, rumination, and neurotic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2), 189-201.
- Zautra, A. J., Affleck, G. G., Tennen, H., Reich, J. W., & Davis, M. C. (2005). Dynamic approaches to emotions and stress in everyday life: Bolger and Zuckerman reloaded with positive as well as negative a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73(6), 1511-1538.

1 차원고접수 : 2020. 12. 06.

수정원고접수 : 2021. 05. 21.

최종게재결정 : 2021. 05. 22.

Strong relational motives of married individuals are beneficial only for the less neurotic

Hwaryung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Ji-eun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rriage, as a major turning point in life, tends to place spouse and children at the center of individuals' social networks. By focusing on relational motives of married individuals (i.e., mate retention, parenting), we examined their association with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the potential moderating role of neuroticism. Studies have shown that strong motives can be maladaptive when actual-ideal discrepancies generate negative emotions. In line with this view, neuroticism, characterized by heightened sensitivity and reactivity to negative social cues, may reduce the benefits that come from strong relational motives. As predicted, two studies demonstrated that individuals' mate retention (Study 1) and parenting (Study 2) motives positively predicted their relationship satisfaction, only among the less neurotic. Our findings suggest that hedonic benefits of relational motives may be contingent on the level of neuroticism.

Key words : relational motive, mate retention, parenting, neuroticism, relationship satisfaction